



홍 부총장은 캠퍼스 안 역동성을 강조하며 학교가 활기를 띠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넓은 캠퍼스 부지에 연구소와 같은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꼽았다.

(사진=부총장실 제공)

## “국제는 다양한 학문의 융합캠퍼스 연구소 유치 등으로 캠퍼스 활성화할 것”

박서현 기자 parkseoehyun@khu.ac.kr

# 홍충선(컴퓨터공학) 교수가 국제 캠퍼스(국제캠) 학무부총장에 임명돼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홍 부총장을 만나 국제캠이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Q. 국제캠을 바라보는 전반적 비전

A. 국제캠은 이공계, 인문·사회계, 예술·체육계가 모두 있는 융합 캠퍼스다. 품격과 첨단성을 모두 살리는 종합 캠퍼스가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캠퍼스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캠퍼스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캠퍼스가 보유한 역사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캠퍼스 문과 대학 건물은 영화 <건축학개론> 배경이 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 다닌 학생은 문과대 건물을 보며 <건축학개론>이 보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를 공유한다. 하지만 지금 20대는 그 정서를 공유하기 어렵다. 이렇듯 시간이 흐르며 캠퍼스를 바라보는 구성원의 생각이 조금

씩 달라진다. 국제캠도 어느덧 설립 5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제캠이 경희대라는 맥락 속에서 역사성을 통해 정서를 향유했으면 한다.

### Q. 이원화 문제에 관한 견해

A. 이원화라는 용어가 어려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뜻을 알기 위해 단어가 쓰이는 맥락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이원화됐다는 것은 캠퍼스를 두 개 보유하고 있고, 둘 다 본교이며 각 캠퍼스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One-Campus(원 캠퍼스)다. 우리학교 구성원은 이원화 대학에 속한 당사자기 때문에 이원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뭔가 다르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이는 학교보다는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인 표현이 바뀌어야 한다.

### Q. 넓은 국제캠 부지 활용 방안

A. 캠퍼스가 발전하려면 먼저 공공, 특히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두 번째는 기업이다. 기업이 대학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자본이 함께하면 캠퍼스 개발 계획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연구소나 국공립연구소가 캠퍼스 안에 건물을 지어 대학 안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방학이 되면 캠퍼스의 역동성이 떨어지는데, 대학원생이나 연구자 등이 오간다면 캠퍼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성원 생각을 모아야 한다.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은 캠퍼스와 조화를 이뤄야 하고 구성원 정서에 맞아야 한다. 또한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등 고려할 것이 많다. 총장이 제안하고 법인이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캠퍼스에 앞으로 들어설 건물은 옛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짓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 앞에 조성하는 것을 논의 중인 파빌리온이 있다. 공과대학은 국제캠에 지어진 첫 번째 건물

인데, 학교에 진입하면서부터 저기는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는 인식이 있다. 파빌리온이라는 공간을 조성해 학생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 이를 통해 학생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 Q. 이공계열 학생이 많은 국제캠에서 산학협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A. 앞서 말했듯이 국공립연구소의 캠퍼스 내 입주도 캠퍼스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등이 사용하는 모델이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 계약해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도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계약학과는 정원 외 학생 선발에 따른 교수 증원으로 재정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 학교에 오게 되고 특정 학과의 인기가 높아지면 다른 학과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소위 말하는 입결이 상승할 것이다.

계약학과 설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경희대를 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학교가 기업에서 포럼을 진행하는 등 우리가 기업에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포럼에서 연구 활동과 기술 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연구 측면에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제공해 기업이 학교에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올해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 Q.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

A. 우리나라는 300여 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경희대는 세계 평가로도, 국내 지표로도 6위 정도다. 6위에 올라 있는 대학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 국내 명문 대학이기에, 그에 맞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내 명문이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되도록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또 자부심을 갖자는 말을 구성원에게 건네고 싶다.

※ 지면 사정상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대학주보 온라인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